

문제1

각 제시문에서 개인과 사회는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 중에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것부터 낮은 것으로 네 제시문들의 순서를 정한다면 (가), (라), (다), (나)이다.

(가)에서는 개인의 철칙이 사회 전체로 확장되어 적용 되어 영향을 미친다. 공감능력을 갖춘 합리적이고 이상적 존재인 '공평한 관망자'가 개개인의 욕구를 파악해 그것들을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사회의 규칙을 조정한다. 그리고 그 규칙에 따라 사회적 희소가치와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배분한다. 이처럼 개인이 사회 전체의 규칙을 조정하는 (가)는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크다. 이와 반대로 (나)에서는 사회가 개인의 전체성을 형성하게 하는 반면,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역할은 제한적인 모습이 드러난다. 사회는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개인에게 의무와 권리를 나눠주고 개인의 도덕적 신념 형성에도 기여하지만, 개인은 단지 부여받은 사회적 정체성을 통해 사회를 관찰, 이해하거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가치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 데 그친다.

(다)와 (라)는 공통적으로 개인의 도덕성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저도에 따라 둘의 순서를 구분 지을 수 있다. 다)에서 개인은 이타심을 갖췄으며 공감능력을 갖췄고 이러한 도덕성을 학습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이 모인 집단, 즉 사회는 개인의 이기심이 강화되어서 나타나 비이성적이며 이기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이 그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더라도 사회는 본질적으로 이기적이므로 그 정도에는 한계가 있다.

((라)에서의 사회, 즉 정치적 공동체는 우선 시민들, 즉 개인의 도덕성을 전제로 한다. (다)와 유사하게 부도덕적 개인들이 사회의 도덕성을 떨어뜨려 집단이기주의를 야기할 수 있으나, 도덕적 개인들 간 강한 유대감으로 이루어진 사회는 그러한 ㄷ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보다 크다.

문제2

각 제시문들은 현대 사회의 갈등에 대한 어떠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가)에서는 제3자의 개입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즉, 이상적 존재인 '공평한 관망자'가 그의 상상력을 토대로 구성원들의 요구를 파악한다. 그후 , 그러한 요구들을 하나의 욕구체계 하에 각각의 욕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규칙을 조정해 사회적 희소가치를 배분한다. 이러한 합리적 원칙을 공평한 관망자가 공감력과 상상력을 통해 사회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다.

(나)에서는 사회적 차원의 해법을 제시한다. (나)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며 그관점으로 사회를 이해한다. 그에 따라 그 개인이 속한 사회는 개인에게 사회의 기대, 의무를 부여하며, 개인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점 형성에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적 차원에서 구성원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규범 등을 형성해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갈등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다)에서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두 가지 해법을 제시한다. 개인 간 혹은 소수의 갈등일 때 교육이나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해 갈등의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집단 간의 갈등일 때는 집합적으로 표출된 개인의 이기적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사회세력, 즉 법이나 정부같은 사회적 강제력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그경우에도 개인의 도덕성이 결국엔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한 개인의 도덕성 함양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라)에서는 정제공동체를 통한 사호 간 요구와 이익의 합의를 갈등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제공동체의 형성과, 집단이기주의 같은 부패와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개인의 도덕서임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인의 도덕성 함양을 전제로한 정제공동체를 형성해 '우의'의 덕을 구현하여 정치적 방안으로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추가 질문

문제 1에서 순서를 가-라-다-나로 제시하고 근거 제시를 가-나-다-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가와 나 사이의 대비관계와 다와 라 사이의 비교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자 함이었는데,

그냥 근거도 가-라-다-나로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할까요?